

## ‘nud 퍼레이드’가 불륜 용서의 대가



불륜 현장을 들킨 남성이 ‘nud 퍼레이드’로 아내에게 속죄했지만 풍기문란죄로 체포됐다. 콜롬비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지난 15일 남편 자이로 바르가스라는 아틀란티코주 바랑키야의 한 모텔에서 다른 여성과의 밀회 현장을 아내에게 들켜고 말았다. 용서를 구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 지붕 위에 벌거벗은 채로 올라타 거리를 돌면 용서하겠다고 했다. 이에 남편은 아내의 자동차 지붕에 알몸으로 올랐다.

시민들은 알몸으로 자동차 지붕에 누워 얼굴을 가리느라 바쁜 남성의 모습을 담으려고 카메라를 들이댔다. 바르가스의 아내가 이날 일부러 사람들이 붐비는 오후 시간대를 선택해 남편을 자동차 지붕 위에 태우고 거리를 순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민망한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이 앞다퉈 올린 동영상에는 수건에 연신 얼굴을 파묻는 바르가스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에게 다가가 조롱 섞인 농담을 던지고 아내가 타고 있는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리는 시민들도 볼 수 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니엘라 우스타는 촬영 영상을 자신의 트위터에 공유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며 바르가스의 한심한 행동을 지적했다.

퇴근길 자가용으로 붐비는 도로에 바르가스의 ‘nud 퍼레이드’가 걸치면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콜롬비아 경찰은 공공장소에서의 풍기문란 혐의로 바르가스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바르가스를 재판에 회부할 방침이다.

## 충격! 시체 옆에 두고 에베레스트 등산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정상 부근에서 사망한 사람의 시체 옆(사진 내 원안)으로 등산하는 등산객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있다.

지난 27일 캐나다 출신의 영화제작자이자 등산가인 엘리나 사이칼리는 얼어붙은 시체를 옆에 둔 채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등산객들의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 사진은 지난 23일 에베레스트 정상 부근의 ‘힐러리 스텝’에서 촬영된 것으로 시체는 산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등산로 옆에 밧줄로 대롱대롱 묶여있다. 시체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사이칼리는 “시체가 된 이 불쌍한 사람은 모든 등산객들이 볼 수 있는 해발 7,000피트에 자리잡고 있었다.”면서 “우리는 모두 꿈을 좇고 있었고 우리 발 밑에는 생명이 없는 영혼이 있었다. 어쩌다 에베레스트가 이 모양이 됐느냐?”며 한탄했다. 이어 “이곳을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인가? 해결책은 있는가?”라고 적었다.

올해 들어 벌써 11명이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다 목숨을 잃었다. 이는 기후가 따뜻해지는 3~5월 사이에 등산객들이 몰리는 영향이 크다. 정상 부근 능선인 테스존으로 불리는 병목 구간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현상이 일어나 등산객들이 고산증에 노출된 위험이 커진 것이다. 여기에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산업이 커지면서 경험없는 등산객들이 많아진 것도 사고를 키우고 있다.

산악 전문가 데이비드 모튼은 “네팔 정부가 등반객 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이러한 사고가 벌어지기 최적화된 상황이 됐다.”고 비판했다. 올해 봄철 정상등반이 허용된 등산객은 381명으로, 지난해의 346명보다 크게 늘었다. 등반객은 통상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는 셰르파를 동반한다. 따라서 날씨 조건이 최적화하는 며칠 사이에 최소 750명가량이 좁은 외길에 몰릴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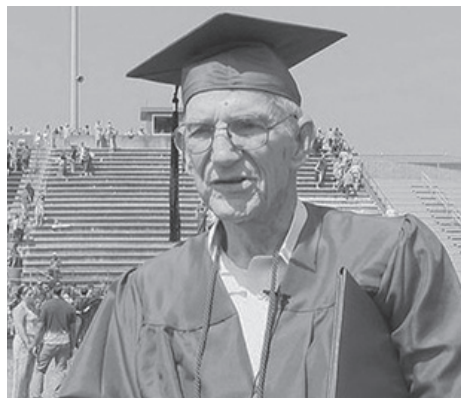
하지만, 네팔 정부는 “정체 현상이 사망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등반 제한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1922년 최초의 에베레스트 등반객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약 200여명의 산악인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 한국전 참전용사 66년 만에 고교 졸업

한국전쟁에 참전하느라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던 85세의 노인이 66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아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25일 테네시주 발렌티어고등학교 졸업식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명이 사각모를 쓰고 나타났다. 주인공은 빌 윌리엄 아놀드 크래독(85·사진) 용.



그는 테네시주 사이언스힐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16살이던 1953년 공군에 입대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공군에서 8년 가까이 복무하며 검정고시로 졸업장을 땀지만 졸업식을 치르지 못한 것은 내내 한이 됐다. 제대로 학교

에 다녔다면 1953년쯤 친구들과 함께 졸업가운을 입었겠지만 그는 66년이 지나서야 증손자輩의 학생들과 나란히 앉아 졸업했다.

이날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졸업장을 받은 크래독은 졸업생들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교육은 다 받고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워라.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 “우리(참전용사들)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전쟁에 뛰어 들었다. 어떤 이는 목숨을 잃는 희생을 치렀다.”면서 “참전용사들을 기억해달라.”는 말을 남겼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한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요일 오전10시30분  
 매주 금요일 오전10시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더 장